

파푸아뉴기니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2.

I. 일 반 개 황	1
II. 경 제 동 향	2
III. 정 치 · 사 회 동 향	6
IV. 국 제 신 인 도	7
V. 종 합 의 견	8

국 별 조 사 실

파푸아뉴기니

I. 일반개황

면적	463천 Km ²	GDP	52억 달러(2007년)
인구	6.33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829달러(2007년)
정치체제	입헌군주국	통화단위	Kina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환율(달러당)	2.97 Kina(2007년)

-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동북부에 있는 뉴기니섬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1975년 9월 호주로부터 독립한 영연방의 일원이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금, 동, 석유 등 광물자원 및 농림수산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서 광물 및 농림수산물의 수출 호조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최근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음.
- 그러나 광업 및 농림수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 정당 난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등에 따른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2.7	5.1	2.6	6.0	6.3
재정수지/GDP	1.5	-0.1	3.7	2.9	2.2
소비자물가상승률	2.1	1.8	2.4	0.9	8.8

자료 : IFS, EIU

□ 세계경기 불안에 따른 성장세 둔화

- 파푸아뉴기니는 2003~06년 연평균 2.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해왔으며, 채광 및 채석 산업의 경기 회복과 건설업의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7년 경제성장률이 6%로 급상승하였고, 2008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09~10년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을 비롯하여 주요 수출시장인 호주의 경기 위축과 동국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금, 동 및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

- 2004~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약 1.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연료 소매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여파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8%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 중 중앙은행(Bank of Papua New Guinea: BPNG)이 2003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책이자율(Kina Facility Rate: KFR)을 8%로 총 2% 포인트 인상하는 등 엄격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2009~10년에는 호주 달러에 대한 키나화의 평가절상과 세계 식료품 및 연료가격의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감소할 전망이며, 중앙은행(BPNG)도 국내수요 진작을 위해 KFR의 인하 등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에 따른 키나화 강세 지속

- 파푸아뉴기니 키나화는 2007~08년 중 호주 및 미국 달러와 유로화 등의 통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2009~10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경상수지의 악화로 키나화 강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흑자 기조 유지

- 최근 몇 년간 정부지출의 엄격한 통제와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부수입 증가로 재정수지가 개선되었음. 2009년 정부는 균형예산을 목표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정부수입이 급감하여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경제구조 및 정책

□ 농림수산업 및 광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 파푸아뉴기니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GDP의 34%)과 광업(GDP의 28%)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력의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급자족 및 영세 자영농으로 농업의 상업화가 인구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으며, 높은 남성 실업률과 함께 미개발 농지가 문제점으로 드러남.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금, 동, 원유 등 광물 및 임산물이 총 수출의 약 80%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국제 상품가격의 변동과 광물 및 임산물의 생산량 기복은 동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작은 경제규모 및 높은 실업률

- 파푸아뉴기니는 2007년 GDP가 52억 달러로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 및 수입이 동국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외 변동요인에 매우 취약함.
- 동국의 인구는 633만 명으로 오랜 고립생활로 소규모의 부족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생계 위주의 생산활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 비공식적인 부문의 자영농 인구가 많으며, 2002년 이후 광업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여 2004~07년 연평균 10%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전력, 도로 등 인프라 열악

- 도로의 85% 이상이 미포장 상태이고, 철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력은 일부 주요 도시에만 공급되나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 교통, 전력, 통신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파푸아뉴기니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금, 동, 석유 및 가스 등이 있음. 광업 개발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임에 따라 호주,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 및 인프라 개발계획을 위한 정부지출 계획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제 상품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한 정부수입의 상당 부분을 추가 우선지출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유보해두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농촌 경제의 강화 및 변화를 위한 사회 및 인프라 개발계획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
-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 복구 및 운송망 건설 등을 위해 동 자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하여 지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82	423	411	126	413
경상수지/GDP	-1.9	9.4	8.6	2.4	6.2
상 품 수 지	1,096	1,753	2,182	2,057	2,626
수 출	2,555	3,278	4,172	4,686	5,646
수 입	1,459	1,525	1,990	2,629	3,020
외 환 보 유 액	631	717	1,400	2,053	2,419
총 외 채 잔 액	2,149	1,886	1,675	1,638	1,591
총외채잔액/GDP	49.9	42.1	39.0	32.4	27.9
D.S.R.	17.1	10.8	8.3	8.0	7.4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흑자 기조 유지

- 파푸아뉴기니는 꾸준한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2006년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8년까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에는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광업부문 외국인투자의 수익 및 배당금 송금, 외채이자 지급 등으로 인한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를 상쇄시키지 못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 낮음

- 2007년말 총외채잔액은 1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으나, GDP의 증가에 따라 총외채잔액/GDP가 31.2%로 감소하고, D.S.R.도 8.0%로 감소하는 등 외채관련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국제 상품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나 2008년 7월 270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단기간 내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동향

□ 소마레 총리 사임 압력

- 여러 스캔들의 연루 혐의로 소마레(Michael Somare)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불신임 유예기간인 18개월이 종료되는 2009년 초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직을 유지하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마레 총리가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조만간 사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 은퇴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음. 지도자 규범(Leadership Code)에 따라 연간 재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옴부즈맨위원회(Ombudsman Commission)가 검찰에 소마레 총리의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따라 소마레 총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부젠빌 자치정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 2008년 6월 부젠빌 초대 대통령인 카부이(Joseph Kabui)가 사망함에 따라 부젠빌 자치지역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중으로 2008년 11월 중순까지 접수된 후보는 총 14명이며, 동년 12월말에 선거가 끝날 예정으로 중앙 정부는 선거 감시를 위해 외국대사관 등을 초청하였음.

2. 사회 동향 및 국제관계

□ 부젠빌 지역 분쟁 가능성 상존

- 부젠빌 주민들은 원래 자신들을 뉴기니섬 본토인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왔으며, 1975년 호주로부터 독립할 때 지방정부제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1988년 중앙정부와 동 광산 수익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유혈충돌이 발생하자 중앙정부가 무력진압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부겐빌 반군의 활동은 더욱 세력을 얻게 되었음.
- 2001년 8월 중앙정부와 부겐빌 반군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이후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의 철수 등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분쟁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큰 편임.
- 한편,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남부 Highlands섬에도 유사한 사회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제반 불안요건이 심화될 경우 동 지역에 대해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호주와의 관계 개선

- 2008년 초 3년 만에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간 연례장관포럼이 재개되는 등 호주와의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소마레 총리는 호주의 현 Kevin Rudd 총리와 더욱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음. 그러나 호주의 동국 앞 원조정책은 개발지표 개선 등을 규정하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외교관계 다변화 추진

-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원조와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Look North”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ne China”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대만과 중국의 일부 섬 정부와 외교적인 유대관계를 배제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D.S.R. 및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하는 등 대외채무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증가로 당분간 외채 상환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 원조국인 호주와의 관계 유지 및 지속적인 경제 지원 등을 감안할 때, 대외지급능력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국제시장평가

- Moody's : B1(1998. 12)
- S&P : B(2001. 8) → B+(2007. 9)
- Fitch : B(2003. 7) → B+(2008. 3)
- OECD : 5등급(2007. 4) → 5등급(2008. 4)
- I.C.R.G. : 62/140(2008. 5) → 60/140(2008. 11)
- I.I. : 102/174(2008. 3) → 109/177(2008. 9)
- Euromoney : 103/185(2008. 3) → 97/186(2008. 9)
- 파푸아뉴기니의 재정상태 및 정책과 대외부문 지표 개선, 정치 안정 등을 반영하여 S&P는 2007년 9월 동국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고, Fitch도 2008년 3월 동일하게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3. 주요 ECA 인수 태도

- US Eximbank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Atradius :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V. 종합 의견

- 파푸아뉴기니는 2005년 이후 주요 수출품인 금, 동, 석유 등 광물자원과 목재 등 농림수산물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3% 이상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지속적인 광업부문 및 건설업 성장으로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재정수지 및 외채관련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경기 침체 및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2009년부터 경제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될 전망이다.
- * 파푸아뉴기니의 재정상태 및 정책, 대외부문 지표 개선, 정치 안정 등을 반영하여 S&P는 2007년 9월 동국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고, Fitch도 2008년 3월 동일하게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산업구조가 농업과 광업 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소수 정당 난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소마레 총리의 사임 압박 등으로 정국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동국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책임조사역 백 승 주 (☎3779-6648)

E-mail : sjpaik@koreaexim.go.kr